

재미 한인청소년의 집에 대한 장소애착,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에 대한 연구*

A Study of Place Attachment to Home, Acculturative Stres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Korean Youth in the United States*

이진숙(Jin-Suk Lee)¹⁾

데지레 친(Desiree B. Qin)²⁾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place attachment to home, acculturative stres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Korean youth in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this study sought to better understand how place attachment to home and acculturation stress impacts upon youth's psychological adjustment, as measured by depression and self-esteem. The subjects consisted of 225 Korean youths (113 males and 111 females) residing in Michigan in the USA, of whom 47.6% attended middle school while 52.4% of whom attended high school. The instruments utilized were the acculturative stress scale (Sandhu and Asrabadi, 1994), the place attachment scale (Choi, Lee, & Han, 2009), Radloff's depression scale (CES-D), and Rosenberg's self-esteem scal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to assess the predictive effects of place attachment to home and acculturative stress on youth's psychological adjustment, alongside controlling demographic variable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place attachment to home and acculturative stress impacted upon depression and self-esteem, as experienced by the youths examined. These results have implications for our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both youths' place attachment to home and acculturative stress in the acculturation process.

* 이 논문은 200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9-013-C00053).

이 논문은 2011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요약문의 전문임.

¹⁾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학과, 부교수

²⁾ Assistant Professor, Dept. of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Michigan State University, U.S.A

Corresponding Author : Jin-Suk Lee, Dept. of Child Studi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561-756) 664-14, Duckjin-dong, Duckjin-gu, Jeonju, Jeonbuk, Republic of Korea
E-mail : jslee0820@jbnu.ac.kr

Key Words :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 집에 대한 장소애착(Place attachment to home), 심리적 적응(Psychological adjustment), 재미 한인청소년(Korean youth in the United States).

I. 서론

서구에서 아시아계 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아시아계 학생들이 심리적·교육적 문제가 적다는 것이었다(Kim, Omizo, & Salvador, 1996; Serafica, 1999). 즉 아시아계 학생들이 다른 이민 집단에 비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적응문제를 덜 경험한다는 것이다. 아시아계 학생들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인상은 종종 어려움이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의 문제를 간과하거나 드러나지 않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Yagi & Oh, 1995). 그러나 아시아계 학생들이 학업수행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즉 아시아계 학생들은 가족의 체면을 위한 학업적 성공을 위해 압박에 시달리며, 개인주의적 사회에서 집단가치를 강조하는 가족문화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된다는 것이다(Castillo & Phoummarath, 2007).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청소년들 역시 이러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조기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영숙 외, 2002)에 의하면, 해외에 유학 중인 청소년들이 대학생 유학생집단과 달리 정체감 형성과 적응에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 거주 청소년들이 청소년기 고유의 문제 외에 주류문화 적응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사회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시사한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교포 청소년의 심리정신 건강(노충래, 2000), 조기 유학생의 적응 관련 연구(강만철, 2008; 김영희·최명선·이지

향, 2006; 박영숙 외, 2002; 이수연, 2009a) 등이 일부 이루어졌을 뿐 해외거주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최근 들어 영어교육이나 해외유학 등을 목적으로 한 이주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에 체류 중인 한인청소년의 비율 역시 급증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의하면, 2006년~2007년에 3만명에 달하는 중고생들이 해외 유학을 위해 한국을 떠났는데, 이는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45%가 증가한 것이었다. 1999년 1839명이었던 유학생 수는 2000년 4,379명으로 급증하였으며, 계속 증가세를 보여 2006년에는 29,5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ttp://world.kbs.co.kr>). 영어권 국가는 특히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아 미국의 경우 한국 학생들은 가장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민 집단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영숙 외, 2002). 학업상의 이유뿐 아니라 직업이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주거지 변화가 급증하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변화와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Molcar(2006)는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친숙하고 편안한 환경(장소)의 부재가 아동·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그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출생이후 부모에 대한 애착이 형성·발달되어 가는 것처럼 특정 장소에 대해서도 애착 감정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장소애착(place attachment)은 장소에 대한 한 개인의 정서적 유대감을 설명하는 복합적 구성개념으로 (Kyle, Mowen, & Tarrant, 2004; Low & Altman,

1992; Molcar, 2006; Scopelliti & Tiberio, 2010; Stedman, 2002), 한 개인이 특정 물리적 공간, 즉 집, 도시, 휴가지, 공원 등 다양한 장소에 대해 발달시키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간주되고 있다. 장소에 대한 애착에 있어서 집/가정(home)은 인간에게 가장 의미있는 일차적 장소로(최열 · 임하경, 2005)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누구에게나 일생동안 삶의 근거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강조되고 있다(최병숙 · 이진숙 · 한영숙, 2010). 집(가정)은 한 개인의 대인애착 및 장소애착 경험을 위한 최초의 물리적 환경이며(이진숙 외, 2009), 개인에게 편안함과 쉬를 제공하고 정서적인 안녕과 친밀감, 안정감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의미가 있다. 즉, 집은 물리적 공간의 의미를 넘어서는 실존적이고 심리적인 의미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장소에 대한 애착은 대인애착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발달단계에 따라 변화 · 발전되어 가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Molcar(2006)에 의하면, 인간은 일생동안 거주지를 옮기거나 여러 장소를 경험하면서 장소애착 역시 변화 · 발전한다. Erikson은 장소에 대한 개인의 관계가 전생애를 통해 변화되고 특히 아동 · 청소년기의 경험이 이후의 발달단계에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Hess, 1998 재인용). 가정이 없는 아동들의 정서적 혼란 수준이 높고(Bassuk, Rubin, & Lauriat, 1984; Molcar, 2006 재인용), 향수병이 심한 학생들이 자아존중감이 낮고 자아정체감과 내적통제의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결과(Chawla, 1992; Tognoli, 2003)는 청소년기 발달에서 가정(집)이 지니는 물리적 · 심리적 중요성을 시사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모국의 가치와 주류사회의 가치가 서로 경합하는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으므로 집에 대한 정서적 애착은 심리적 안정기반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소의 재배치와 이동성은 개인의 장소애착과 향수병에 영향을 미치므로(Scopelliti & Tiberio, 2010) 이주로 인한 거주 장소의 변화가 청소년의 장소애착과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장소에 대한 유대감의 상실이 종종 부정적인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하지만(Fried, 1963) 이러한 부정적인 부작용이 장소 재배치의 필연적 결과는 아니라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이동성’이 긍정적인 정서적 유대의 형성을 배제하지 않으며(Gustafson, 2001) 다양한 장소에 대한 긍정적 유대감, 즉 다중 장소애착이 장소 재배치 이후에 경험될 수 있다(Giuliani, Ferrara, & Barabotti, 2003)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볼 때, 유학이나 부모의 이민으로 인해 해외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거주 장소인 집에 대해 어떠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있는지는 그들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타 문화에의 적응과정에서 독특하게 발생하는 스트레스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틴계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대다수 연구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낮은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보고하였다(Hwang & Ting, 2008). 예컨대, 미국에 거주하는 멕시코계 중학생 대상 연구(Romero & Roberts, 2003)는 많은 청소년들이 이중문화 · 언어 환경에서 초래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중문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성, 연령, 거주기간 등 인구학적 변수의 차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우울과 높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멕시코계 이민집단 연구에 비해 아시아계 이민집단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아시아계 이민자의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Shin, 1994; Oh, Koeske, & Sales, 2002).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아시아계 미국 대학생의 우울을 증가시키고(Hwang & Ting, 2008) 낮은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다(Constantine, Okazaki, & Utsey, 2004). 이처럼 한인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및 심리적 복지에 대한 연구가 소수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며, 교포 청소년의 심리정신건강(노충래, 2000) 및 조기유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이수연, 2009a; 이수연, 2009b; 권미경 · 이순형, 2010)가 보고되었을 뿐이다. 예컨대,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조기유학 청소년의 우울 · 불안에 영향을 미치며(이수연, 2009b), 조기유학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권미경 · 이순형, 2010).

그동안 청소년의 성, 연령, 거주기간 등은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변수로 고려되어 왔다. 성과 연령은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권미경 · 이순형, 2010; Ye, 2005; Yeh & Inose, 2003). 권미경과 이순형(2010)에 의하면, 조기유학 청소년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성차와 관련하여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우울이 높다는 연구(권미경 · 이순형, 2010; 신민섭 · 조준현 · 홍강의, 1996; Beautrais, 2002)와 차이가 없다는 연구(이지민, 2007; 이수연, 2009a)가 보고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교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노충래, 2000)에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다. 거주기간의 경우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

는다. 미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으나(Wilton & Constantine, 2003; Ying, 2005) 다른 연구에서는 거주기간과 향수병 혹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에 유의한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다(Ye, 2005; Wei et al., 2007). 10~19세의 조기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수연, 2009a)는 3년 이상 거주한 청소년이 거주기간이 짧은 청소년보다 인지 · 동기영역에서만 우울수준이 높다고 보고했다. 또한 가족배경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집에 대한 장소애착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변수임을 시사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할 뿐 아니라 장소애착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영미권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청소년의 적응관련 연구가 미비한 상황으로 재미 한인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요청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재미 한인청소년을 대상으로 집에 대한 장소애착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해외 거주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어 왔으므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장소애착을 함께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고 집에 대한 장소애착이 독립적으로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인구학적 변수가 심리적 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청소년의 성, 연령, 거주기간, 부모의 교육 수준 등 인구학적 변수와 주요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주요 변수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의 지표는 자아존중감과 우울 변수를 사용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우울을 설명하는 예측변인으로 사용하기도 하나 (노충래, 2000; Rosenberg, 1965; Shin, 1992), 높은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적응의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의 긍정적 지표로 간주하여 종속변수에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재미 한인청소년의 집에 대한 장소 애착, 문화적응 스트레스, 심리적 적응의 일반적 경향 및 인구학적 변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인구학적 변수의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집에 대한 장소애착,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6학년부터 12학년에 재학 중인 재미 한인청소년으로 부모 모두 한국인인 청소년이다. 총 225명의 학생 중 남학생(50.5%)과 여학생(49.6%)의 비율이 반반 정도이며 중학생(6~8학년)이 107(47.6%)이고 고등학생(9~12학년)은 118명(52.4%)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출생한 청소년은 126명(56%)이고 미국 출생은 99명(44%)이며, 미국내 거주기간은 2년 미만 18.8%, 2년~5년 미만 12.8%, 5년~10년 미만 17.4%, 10년 이상 50.9%로 나타났으며, 평균 거주기간 약 8년이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32%, 대학원 이상이 약 48%이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졸 46%, 대학원 이상이 약 24%로 나타나 부모의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현재 청소년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78%였으며, 한부모나 가디언과 거주하는 경우는 약 22%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에게 가정의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질문한 결과 보통이 57%이고 높은 편이라는 응답(28.2%)이 낮

<표 1> 조사대상의 특성

변수	구분	N	%	변수	구분	N	%
성별	남	113	50.4	부 학력	고졸 이하	23	11.2
	여	111	49.6		대학졸업	72	35.1
학년	중학생	107	47.6		대학원 이상	110	53.7
	고등학생	118	52.4	모 학력	고졸 이하	36	17.6
거주기간	6개월-2년 미만	41	18.8		대학졸업	107	52.5
	2-5년 미만	28	12.8		대학원 이상	61	29.9
	5-10년 미만	38	17.4	부모와의 동거여부	부모와 동거	175	77.8
	10-15년 미만	85	39.0		한부모	31	13.8
	15년 이상	26	11.9		가디언	18	8.0

* 결측치로 인해 각 변수별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은 편(14.8%)이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대상 가정의 경우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적 상황도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2. 측정도구

1) 집에 대한 장소애착

본 연구에서 집에 대한 장소애착이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으로서, 특히 집(home)에 대해 느끼는 편안함과 행복감, 안락감 등 정서적 느낌과 연결감을 느끼는 상태로 조작적 정의한다. 측정도구는 ‘집에 대한 장소애착 척도’(최병숙·이진숙·한영숙, 2010; Choi, Lee, & Han, 2009)중 일부 하위요인을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집에 대한 정서적 느낌이 청소년의 발달 및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집에 대한 정서적 감정’을 가장 잘 반영하는 요인인 ‘장소 애정성’(place affection)과 ‘장소 휴식성’(place restfulness)을 선별하여 집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였다. 장소애정성은 행복, 그리움, 머무르고 싶고 좋은 곳의 개념을 담고 있고, 장소휴식성은 집이 주는 쉼, 즐김, 보금자리, 환영 등의 의미가 포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두 요인은 ‘아동기 장소애착 척도’(이진숙 외, 2009)의 애정성(affection)에 해당되는 문항으로 자신의 집(home)에 대해 느끼는 편안함과 행복감, 안락감 등을 반영하는 문항들이기에 청소년의 집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을 측정하는데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의 예를 들면, ‘우리 집은 내가 쉴 수 있는 곳이다’, ‘집에 들어서면 집이 나를 반기는 느낌을 받는다’, ‘집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등이다. 전체

문항수는 8문항으로 합산점수를 집에 대한 장소애착 점수로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정서적인 느낌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Cronbach' α 값은 .92로 나타났다.

2) 문화적응 스트레스

한인 청소년의 미국사회에서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평가하기 위해 Sandhu와 Asrabadi (1994)에 의해 개발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사용하였다.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적대감, 두려움, 죄책감, 기타 등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 36문항이다. 전체 36문항 중 안전에 관한 2문항은 한인 청소년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최종적으로 34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값은 .92로 나타났다.

3) 심리적 적응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평가하기 위해 긍정적 측면인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측면인 우울을 평가하였으며, 각각 Radloff(1977)의 우울척도와 Rosenberg(1979)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척도 설명은 아래와 같다.

• 우울 척도 : Radloff(1977)에 의해 개발된 우울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측정도구로 응답범주는 0점(거의 그렇지 않다)~3점(항상 그렇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Radloff(1977)는 CES-D 점수가 임상적으로 우울집단과 비우울 집단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내적 일관성은 일반집단에서 .85이고 임상집단에서 .90이라고 보고하였다(Radloff, 1977). 이 척도는 다양한 민족 집단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Cronbach α 값이 .88~.90(Wing, Lee & Tsai, 2004)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우울 척도의 Cronbach α 값은 .89였다.

• 자아존중감 척도 :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척도로서 전반적 자아존중감 척도와 수렴타당도가 높게 나타났다(Robins, Hendin, & Trzentsiewski, 2001). 총 10개 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아시아계 미국인 표본에서 내적 신뢰도계수는 .85~.90(Lee, 2003; Ying et al., 2004)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척도의 Cronbach α 값은 .85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미시간 지역에서 한인 교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랜싱, 그랜래핏, 디트로이트에 있는 한인교회와 한국어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미시간 지역의 한인교회 중 청소년부가 운영되고 있는 교회와 한국어학교에 연구협조를 위한 안내문을 배포하였으며, 미시간지역 한인교회 목회자모임에서 본 연구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협조를 의뢰하였다. 본 연구의 취지에 동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한인교회 담임목사 및 한인학교 장으로부터 ‘연구참여동의서’를 받고(직접, 이메일/Fax) 미시간주립대학 IRB의 연구승인절차를 밟았으며(IRB 서류제출 2010. 8.30, 최종 연

구승인 2010.10.20) 최종 연구승인을 받은 후 2009년 11월~2010년 1월에 걸쳐 본조사가 수행되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기관은 랜싱, 그랜래핏, 디트로이트 지역의 한인교회(6개)와 한국어학교(2개)였다. 질문지 실시 전에 해당기관의 허락을 얻어 담당교사와 연락한 후 본연구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설문 실시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조사 실시 1주일 전에 청소년의 부모들에게 ‘연구참여동의서’를 배포하여 연구참여 승인을 얻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실시는 한인교회 청소년부 교사와 한글학교 교사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자가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질문지를 전달하고 담당교사의 안내 하에 질문지 작성이 이루어졌다. 질문지와 청소년의 ‘연구참여동의서’는 영어와 한국어로 준비하였으며¹⁾ 학생들이 자신이 편안한 언어를 선택하도록 배려하였다. 질문지 작성 후 학생들에게는 5달러 상당의 선물권(gift card)을 제공하였다. 총 260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영어 질문지를 선택한 학생은 178명(79%)이고 나머지 47명(20.9%)은 한국어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응답이 부실하거나 연구대상 연령에 해당되지 않는 질문지(35부)를 제외하고 22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18.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t*검증, 피어슨 적률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등의 통계방법을 적용, 분석하였다.

1) 질문지와 연구참여동의서 모두 영어와 한국어로 각각 작성하였다. 본 연구자와 미시간대학 아동학 박사과정 유학생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영어 표현을 수정하고 다듬었으며, 영어질문지는 미시간대학 전공교수의 검토를 받았다.

〈표 2〉 주요 변수의 일반적 경향과 성차 ($N = 225$)

변 수	전 체		남	여	t-test
	M(SD)	범위	M(SD)	M(SD)	
종속변수					
1. 우울	.77(.50)	0~2.47	.78(.47)	.75(.53)	.41
2. 자아존중감	3.65(.69)	1.90~5.00	3.63(.69)	3.68(.69)	-.50
예측변수					
3. 장소애착	3.83(.84)	1.13~5.00	3.77(.80)	3.89(.89)	-.99
4. 문화적응 스트레스	2.24(.59)	1.06~4.29	2.29(.59)	2.20(.60)	1.17

Ⅲ. 연구결과

1. 기초분석

1) 주요변수의 일반적 경향과 성차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집에 대한 장소애착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 및 자아존중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범위,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 지표인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경향을 보면, 우울 점수의 범위는 0~2.47이고 평균은 .77로 나타나 가능한 점수범위(0~3)을 고려할 때 우울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아존중감의 범위는 1.90~5점이고 평균은 3.63으로 중간점수 이상이었다. 집에

대한 장소애착의 범위는 1.13~5점이고 평균은 3.77로 나타나 집에 대한 청소년의 장소애착이 약간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경향을 보면, 점수범위는 1.06~4.29이고 평균은 2.24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각 변수들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인구학적 변수와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청소년의 연령, 미국내 거주기간, 부모의 학력 등 인구학적 변수와 장소애착, 문화적응 스트레스, 심리적 적응(우울 및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인구학적 변수와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

	청소년 연령	거주기간	부학력	모학력	장소애착	문화적응스 트레스	우울	자아 존중감
청소년 연령	1							
거주기간	-.03	1						
부학력	.11	-.11	1					
모학력	-.11	-.32***	.64***	1				
장소애착	-.10	-.08	.14*	.13	1			
문화적응스트레스	.16*	-.08	-.30***	-.19**	-.19***	1		
우울	.30***	-.01	-.22***	-.10	-.39***	.56***	1	
자아존중감	-.12 ⁺	.02	.23***	.08	.32***	-.50***	-.62***	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먼저 인구학적 변수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 변수인 우울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연령과 우울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r = .30, p < .001$), 부의 학력과 우울 간에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r = -.22, p < .01$). 또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연령($r = -.12, p < .10$), 부의 학력($r = .23, p < .001$)과 약한 상관이 나타났다. 반면, 미국내 거주기간과 모의 학력은 우울 및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청소년의 연령이 높고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인구학적 변수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장소애착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연령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에 약한 부적상관이 나타났으나($r = .16, p < .05$) 장소애착과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또한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고($r = -.22, p < .01$) 장소애착 정도가 높으며($r = .14, p < .05$),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r = -.19, p < .01$). 즉, 청소년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고,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장소애착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2. 집에 대한 장소애착,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1) 집에 대한 장소애착, 문화적응 스트레스, 심리적 적응간의 상관관계

청소년의 연령과 부의 학력이 종속변수와 유의한 상관(표 3)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장소애착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r = -.41, p <$

〈표 4〉 집에 대한 장소애착,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간의 상관관계

변 수	1	2	3	4
1. 우울	1			
2. 자아존중감	-.62***	1		
3. 장소애착	-.41***	.31***	1	
4. 문화적응스트레스	.53***	-.45***	-.15*	1

* $p < .05$. *** $p < .001$.

Note. All bivariate correlations were controlled for youth' age and father's education.

.001),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r = .31, p < .001$). 즉 집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고 자아존중감은 높아서 심리적 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를 보면, 우울의 경우 $r = .53(p < .001)$ 의 상관관계, 자아존중감과는 $r = -.45(p < .001)$ 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 간에 중간 이상의 상관이 있었다. 즉,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향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집에 대한 장소애착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에는 약한 부적 상관이 나타나($r = -.15, p < .05$) 집에 대한 장소애착이 낮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청소년의 집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이 낮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음을 시사하지만 관련 강도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집에 대한 장소애착,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표 5〉 집에 대한 장소애착,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모형	독립변수	B	β	R ²	ΔR^2	F	Durbin-Watson
우울	모형1	청소년 연령	.07	.29***	.126	.126	14.49***	1.77
		부 학력	-.05	-.18**				
	모형2	청소년 연령	.06	.26***	.272	.146	24.86***	
		부 학력	-.04	-.14*				
		장소애착	-.23	-.39***				
	모형3	청소년 연령	.05	.20***	.464	.193	43.15***	
부 학력		-.00	-.01					
		장소애착	-.19	-.32***				
		문화적응 스트레스	.39	.47***				
자아 존중감	모형1	청소년 연령	-.03	-.10	.059	.059	6.31***	1.87
		부 학력	.09	3.07**				
	모형2	청소년 연령	-.03	-.08	.152	.093	11.93***	
		부 학력	.07	.17**				
		장소애착	.25	.31***				
	모형3	청소년 연령	-.01	-.02	.306	.154	21.92***	
부 학력		.02	.06					
		장소애착	.20	.25***				
		문화적응 스트레스	-.48	-.42***				

* $p < .05$. ** $p < .01$. *** $p < .001$.

같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모든 변수들의 상관계수가 .50 이하이고 VIF계수 역시 1~2 이하 수준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인구학적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1단계에서 인구학적 변수 중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청소년의 연령과 아버지의 학력을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장소애착을, 3단계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투입하여 각각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먼저, 우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모형 1에서 청소년의 연령과 부 학력이 청소년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12.6%였다. 다음으로 장소애착을 투입한 결과 장소애착($\beta =$

$-.39, p < .001$)이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 설명분은 14.6%였다. 청소년의 연령($\beta = .26, p < .001$)과 부 학력($\beta = -.14, p < .05$) 역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투입한 결과, 추가 설명분은 19.3%이며 부 학력의 영향이 사라지고 문화적응 스트레스($\beta = .47, p < .001$), 장소애착($\beta = -.32, p < .001$), 청소년의 연령($\beta = .20, p < .001$)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들 변수에 의한 종속변수의 설명변량은 총 46.4%로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집에 대한 장소애착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연령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연령과 부학력을 투입한 결과 아버지의 학력($\beta = 3.07, p < .01$)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모형 1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5.9%였다. 다음으로 장소애착을 투입한 결과 9.3%의 추가 설명력을 가졌으며 장소애착($\beta = .31, p < .001$)과 부학력($\beta = .17, p < .01$)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투입한 결과 추가 설명분은 15.4%였다. 부학력의 영향이 사라지고 문화적응 스트레스($\beta = -.42, p < .001$), 장소애착($\beta = .25, p < .001$)만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 총 변량의 30.6%를 설명하였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집에 대한 장소애착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재미 한인청소년의 집에 대한 장소애착,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인구학적 변수의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장소애착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 우울 수준은 높지 않으며 자아존중감 역시 중간점 이상으로 나타나 대체로 심리적 적응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우울이 높고(신민섭 · 조준현 · 홍강의, 1996; 권미경 · 이순형,

2010; Beautrais, 2002)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연구(노충래, 2000)와 차이가 있으나 우울에서 성차의 거의 없다는 결과(이지민, 2007; 이수연, 2009a)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청소년기는 발달적인 변화폭이 크고 정체감 형성과정에 있으므로 성별에 따른 집단적 차이보다는 개인적·환경적 요인에 따른 차이가 더 클 것으로 보이나, 선행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만큼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인구학적 변수와의 상관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연령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청소년의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청소년의 학년이 높아지면서 언어 및 학업부담이 커지는 것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거주기간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거주기간에 따라 조기 유학생의 우울 수준에 부분적인 차이를 보인한 연구(이수연, 2009a)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거주기간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고(Wilton & Constantine, 2003; Ying, 2005; Ye, 2005; Wei et al., 2007) 선행연구와는 연구대상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며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특히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청소년의 우울과는 부적상관을, 자아존중감과는 정적상관을 나타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과 심리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스트레스 감소 및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소애착의 경우에는 부모의 교육수준과는 약한 상관을 보였으나 청소년의 연령, 거주기간과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해석에 한계가 있으며, 추후 연구가 요청된다.

둘째, 인구학적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집에 대한 장소애착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고 자아존중감은 높아져 심리적 적응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집에 대한 장소애착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에는 약한 부적상관이 나타나 집에 대한 장소애착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자신의 집에서 쉽고 편안함,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될 때 이중문화상황에서의 적응스트레스가 낮고 심리적인 어려움도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인구학적 변수의 영향을 고려한 상태에서 장소애착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있어서 집에 대한 장소애착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집에 대한 장소애착은 청소년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 역시 청소년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졌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이민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부 선행연구들에 의해 지지된 바 있다. 예컨대, 교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노충래, 2000)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신건강문제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조기유학 청소년의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수연, 2009a; 이수연, 2009b) 역시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국

외연구에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 증가 및 낮은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음이 보고되어 왔다(Constantine, Okazaki, & Utsey, 2004; Hwang & Ting, 2008; Oh, Koeske, & Sales, 2002; Romero & Roberts, 2003; Shin, 1994). 해외에 유학 중인 청소년은 학업성취나 정체감 발달의 문제 외에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박영숙 외, 2002). 예컨대, 인종차별, 언어·음식문제,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등 낯선 환경에 노출됨으로 인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심리적 외로움과 긴장, 불면증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이렇듯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해외 거주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때 이중문화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조기 개입이 요청된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외에 집에 대한 장소애착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주류사회에의 사회문화적 적응이 요구되는 재미 한인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집(가정)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이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새로운 거주 장소에 대한 긍정적 유대가 향수병의 감소에 도움이 되고(Scopelliti & Tiberio, 2010) 향수병이 높은 학생들이 대부분 자아존중감이 낮고 내적통제감과 자아정체감이 낮다(Tognoli, 2003)는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집이라는 공간이 안락감과 편안함을 제공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겨질 때 청소년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집에 대한 장소애착이 집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그 장소에 관련된 인간의 활동, 상징, 감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이은숙, 2006) 향후 해외 거주 청소년들의 적응과정에서 그들이 거주공간에 대한 갖는 정서적 의미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및 제언

국가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전 세계를 무대로 삶의 양식이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국내에 거주하는 청소년뿐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미 한인청소년을 대상으로 집에 대한 장소애착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심리적 적응간의 관련성을 밝혔으며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각 변수의 독립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재미 한인청소년의 주류문화 적응과정에서 초래되는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때 해외거주 청소년들에게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거주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재미 한인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있어서 편안하게 설 수 있는 공간, 정서적 유대와 안정감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집의 중요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집에 대한 정서적 유대, 즉 집이 주는 휴식과 애정성 등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관여되어 있음을 볼 때 청소년기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시사받을 수 있다. 또한, 집에 대한 애착을 통해 이들의 정서적 안정감 수준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집에 대한 장소애착은 해외거주 한인청소년의 적응을 예측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장소애착은 아동·청소년기의 물리적 환경, 가정과 지역사회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모국과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환경이 갖는 의미를 조명하는 중요한 개념들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해외 거주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집에 대한 장소애착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이에 해외 거주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과 더불어 집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을 공고히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미국의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재미 한인청소년 모두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연구대상 지역이 미시간 지역의 중소도시에 국한되어 있는 만큼 대도시 한인 밀집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를 포함하고, 연구대상 지역 역시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함께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주 외에 다양한 해외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재미 한인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의 예측 변인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장소애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이외에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관련된 다양한 변인이 있으므로 이들 관련 변인을 포함하여 보다 정교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기 자녀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장소애착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령에 적합한 장소애착 도구의 타당화가 요구된다. 발달단계별 측정도구가 개발되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장소애착과 심리적 적

공간 관련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인간과 환경간의 관련성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장소애착과 관련하여 이민 청소년과 일시거주 단기 유학생의 장소애착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바, 연구대상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 수행과정에서 연구대상 표집의 제한 및 질문지 연구의 한계로 인해 지속적인 이민인지, 단기 거주 유학생 인지를 명확하게 분류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면밀한 조사설계를 통해 대상을 세분화하여 장소애착 및 심리적 적응관련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만철(2008). 조기유학 한국학생들의 적응에 관한 연구 : 호주 브리즈번 지역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17(1), 15-27.
- 권미경 · 이순형(2010). 조기 해외유학 아동과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적응 : 문화적응이론에 근거하여. **인간발달연구**, 17(1), 145-171.
- 김영희 · 최명선 · 이지향(2006). 뉴질랜드 거주 조기 유학생의 생활실태와 사회적 지원 방안. **청소년학연구**, 13(1), 55-84.
- 노충래(2000). 로젠버그의 자긍심척도와 집단자긍심척도를 활용한 교포청소년의 심리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0(1), 107-135.
- 박영숙 · 박광배 · 최상진 · Marsella, A. · 김주환(2002). 미국 일시거주 한인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적응 촉진을 위한 인터넷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1(2), 97-139.
- 신민섭 · 조준현 · 홍강의(1996). 청소년의 자아상과 사회적 민감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자아상-우울-불안-사회적 민감성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소아 · 청소년정신의학**, 7(1), 61-67.
- 이수연(2009a).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조기유학생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만족도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6(2), 45-62.
- 이수연(2009b). 미주지역 조기유학 청소년의 우울에 관련된 요인. **청소년학연구**, 16(5), 99-120.
- 이은숙(2006). 장소애착의 본질 : 시 「다시 엘르에게」를 통해서. **문화역사지리**, 18(1), 1-10.
- 이지민(2007). 자아정체감과 학교적응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 연구**, 8(4), 1593-1603.
- 이진숙 · 최병숙 · 한지현 · 한영숙(2009).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30(6), 549-566.
- 최병숙 · 이진숙 · 한영숙(2010). 대학생의 아동기 집과 현재 집에 대한 장소애착의 관련성. **한국생활과학회지**, 19(5), 905-918.
- 최열 · 임하경(2005). 장소애착 인지 및 결정요인 분석.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40(2), 53-64.
- Castillo, L. G., & Phoummarath, M. J. (2007). Culturally-competent school counseling with Asian American Adolescents. Texas A & M University. USA.
- Chawla, L. (1992). Childhood place attachment, In I. Altman & Low (eds). *Place attachment*. New York : Plenum Press, 63-86.
- Choi, B., Lee, J., & Han, Y. (2009). Measurement factors of place attachment on childhood home. Interactive session of EDRA 40 conference. Environmental Design Research Association.
- Constantine, M. G., Okazaki, S., & Utsey, S. O. (2004). Self-Concealment, Social Self-Efficacy,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in African, Asian, and Latin American International College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4(3), 230-241.
- Fried, M. (1963). Grieving for a lost home. In L. J. Duhl (Ed.), *The urban condition* (pp. 151-171). New York : Basic Books.

- Giuliani, M. V., Ferrara, F., & Barabotti, S. (2003). One attachment or more? In G. Moser, E. Pol, Y. Bernard, M. Bonnes, J. A. Corraliza, & M. V. Giuliani (Eds.), *People, place and sustainability : 21st century metropolis* (pp. 111-122). Gottingen : Hogrefe & Huber.
- Gustafson, P. (2001). Roots and routes :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lace attachment and mobility. *Environment and Behavior, 33*, 667-686.
- Hess, K. A. (1998). Attachment to childhood place : Developmental perspective. Doctoral dissertation.
- Hwang, W., & Ting, J. Y. (2008). Disaggregating the effects of acculturation and acculturative stress on the mental health of Asian American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4*(2), 147-154.
- Kim, B. S. K., Omizo, M. M., & Salvador, D. S. (1996). Culturally relevant counseling services for Korean American children : A systematic approach, *Elementary School Guidance & Counseling, 31*, 64-73.
- Kyle, G. T., Mowen, A. J., & Tarrant, M. (2004). Linking place preferences with place meaning :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lace motivation and place attach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4*, 439-454.
- Low, S. M., & Altman, I. (1992). Place attachment : A conceptual inquiry, In I. Altman, S. M. Low, (Eds.), *Place attachment* (pp. 1-12). New York : Plenum Press.
- Molcar, C. C. (2006). The relationship of place attachment to spiritual well-being across the lifespan. Doctoral dissertation. Seattle Pacific University.
- Oh, Y., Koeske, G. F., & Sales, E. (2002). Acculturation, stress, depression symptoms among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2*(4), 511-526.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obins, R. W., Hendin, H. M., & Trzesniewski, K. H. (2001). Measuring global self-esteem : Construct validation of a single-item measure and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151-161.
- Romero, A. J., & Roberts, R. E. (2003). Stress within a bicultural context for adolescents of Mexican descent.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9*, 171-184.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ndhu, D. S., & Asrabadi, B. R. (1994). Development of acculturation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435-448.
- Scopelliti, M., & Tiberio, L. (2010). Homesickness in University students : the role of multiple place attachment. *Environment and Behavior, 42*(3), 335-350.
- Serafica, F. C. (1999). Psychopathology and resilience in Asian American children and adolescents. *Applied Development Science, 1*, 145-155.
- Shin, K. R. (1994) Psychosocial predictors of depressive symptoms in Korean-American women in New York City, *Women & Health, 21*, 73-82.
- Shin, K. R. (1992). Correlates of depressive symptomatology in Korean American Women in New Your City,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USA.
- Stedman, R. C. (2002). Toward a social psychology of place : Predicting behavior from place-based cognitions, attitude, and identity. *Environment & Behavior, 34*, 561-581.
- Tognoli, J. (2003). Leaving home : Homesickness, place attachment, and transition among residenc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sychotherapy, 18*, 35-48.

- Wei, M., Heppner, P. P., Mallen, M. J., Ku, T. Y., Liao, K. Y. H., & Wu, T. F. (2007). Acculturative stress, perfectionism, years in the United States, and depression among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 385-394.
- Wilton, L., & Constantine, M. G. (2003). Length of residence, cultural adjustment difficulti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symptoms in Asian and Latin American international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6*, 177-186.
- Yagi, D. T., & Oh, M. Y. (1995). Counseling Asian American students. In C. C. Lee (Ed.), *Counseling for diversity : A guide for school counselors and related professionals* (pp. 6-83). Boston : Allyn and Bacon.
- Ye, J. (2005). Acculturative stress and use of the Internet among East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Cyber Psychology and Behavior, 8*, 154-161.
- Yeh, C. J., & Inose, M. (2003). International students' reported English fluency, social support satisfaction, and social connectedness as predi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16*(1), 15-28.
- Ying, (2005). Variation in acculturative stressors over time : A study of Taiwanese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59-71.
- http://world.kbs.co.kr/english/news/news_newissue_detail.html No=89, 2009. 9. 20. 인출.
-
- 2011년 8월 30일 투고, 2011년 11월 9일 수정
2011년 11월 16일 채택